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석유·가스

◆ 독일 브룬스뷔텔 LNG 터미널 프로젝트 비용 증가 동향(주독일대사관)

- 독일 현지 언론 보도(tagesschau)에 따르면, 독일 쉘레스비히-홀슈타인주 브룬스뷔텔에 건설된 LNG 터미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초래된 독일 내 가스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례로 여겨졌으나, 연방경제기후보호부(BMWK)가 연방하원 예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터미널 건설 및 운영 예산이 당초 7억4천만 유로에 2억 유로 이상이 추가되어 총 1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추정됨.
- 경제기후보호부는 비용 상승 이유로 건설비 상승 외에 녹색 가스로의 전환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하였으며, 터미널 인프라 통로 건설 또한 기술적인 난해성으로 인해 비용 상승을 초래했다고 설명

기후·에너지 정책

◆ 덴마크,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지원금 공여 계획 발표(주덴마크대사관)

- Lars Aagaard 덴마크 기후·에너지·유틸리티 장관은 9.23(월) 뉴욕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에너지 안보를 위한 G7 실무그룹 회의에서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탄력성 개선을 위해 1.3억 DKK(약 1.9천만 USD)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.
- 금번 지원금은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지원금 중 최대 규모로,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 복구 조치와 장비 및 예비부품 구입에 활용될 예정
- ※ 덴마크는 러-우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에너지 인프라 재건 지원금 약 4.9억 DKK(약 7.3천만 USD)를 공여
- Lars Aagaard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력 및 난방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공격으로 인해 동계 피해가 우려되는 바,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동맹국들의 지원 확대를 촉구함.

신재생에너지

◆ 덴마크 베스타스社, 미국 해상풍력 발전단지 계약 체결(주덴마크대사관)

- 덴마크 풍력터빈 기업 베스타스(Vestas)社は 미국 Empire Wind 1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*에 풍력터빈 공급·설치·운영 및 출력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(9.9).
- 동社は 2026년부터 1.5MW 용량 풍력터빈(54기)의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며, 동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2027년 중 완공 예정
- * 미국 뉴욕주 Long Beach에서 24km 떨어진 부지에 건설 예정인 810M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. 끝.